

<實際藥學과 藥劑學에 관한 Symposium>

主題說明 및 問題提起

金 信 根

서울大學校 藥學大學 教授

藥劑學은 藥學의 一分野로 藥師에게는 必須의 知識의 源泉으로서 오랫동안 藥學의 가장 實際的인 面을 擔當하여 發展해 왔다.

藥劑學은 두말할 것도 없이 醫藥品의 投與形態인 「劑形」의 創製, 生産, 管理 등을 맡은 藥學의 專門學中에서도 가장 特異의이고 藥學的인 存在이며 또 製劑를 通하여 醫學, 醫療와 가장 接觸이 많은 分野이다.

藥劑學은 그 間 눈부신 發展을 가져 왔으며 從來의 藥劑學 獨自의 知識에 넓은 範圍의 基礎分野의 새로운 理論을 導入함으로써 새로운 面을 開拓하였고 이 發展은 오늘날에 와서는 從來의 藥劑學이라는 말로 나타냈던 內容까지도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해도 過言은 아닌 것 같다. 그 間 오랫동안 解決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事實까지도 점차 解決되어 가고 新分野 開拓과 同時에 在來의 分野의 充實과 體系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重要한 使命을 가진 藥劑學이 어느 時期까지는 學問으로서의 進歩性에 있어서 藥學의 他分野보다 뒤떨어졌다는 事實도 또한 否定할 수 없다. 그것은 지난날 有機化學을 主流로 하는 解放前 日本의 藥學의 影響을 받아 이 學問에 對한 關心이 一般적으로 稀薄했다는 것도 그 原因의 하나이나 돌이켜 보면 그것은 藥劑學關係者가 主로 經驗에서 얻은 知識을 集積함으로써 滿足했고 學보다도 術로 생각했던 藥劑學自身에도 問題가 있었음을 솔직히 認定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藥劑學이 取扱하는 範圍가 너무나도 넓고 또 醫藥品 그 自體가 對象으로 하는 生體가 너무나 복잡하기에 藥劑學을 뒷바침하는 基礎學의 導入에 힘을 기우릴 餘裕가 없었다는 事實로 納得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藥劑學도 先進國의 藥劑學의 發展・變遷을 하루 빨리 導入하여 혼돈

된 狀態를 脫皮하여 새로운 藥劑學을 發展시켜야 할 必然的 使命感이 切實히 要求되는 이때 낮은 感이 있으나 오늘 이 symposium에서 다루어질 課題를 진지하게 論함으로써 우리나라 藥劑學의 指標로 하여 前進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藥劑學은 특히 大學課程에서, 舊態依然한 教科內容의 整備, 體系化가 急先務이고 보다 많은 時間을 할애하여 物理藥劑學, 生物藥劑學, 藥劑製造學, 製劑工學, 品質管理學, clinical pharmacy를 포함한 hospital pharmacy 등을 과감히 導入함으로써 消極的, 또는 靜的인 藥劑學에서 積極的이고 動的인 藥劑學에의 脫皮가 오늘과 내일의 藥劑學의 보다 큰 題題라 생각되며, 더욱 이 자리로부터 韓國藥劑學 특히 實務와 連結된 藥劑學의 中興의 契機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